

# 광주 폴리

II 시민과 얼마나 소통했나

▼락스 미디어 콜렉티브 '탐구자의 전철'

## 불편한 '예술 화장실'... 일부 작품 관리자 없다

도심재생 사업 일환으로 지난 2011년에 만들어진 '광주 폴리(Folly I)'에 이어 '광주 폴리II'가 오픈 행사를 앞두고 있다. '폴리II'의 최대 관심사는 '시민 소통'이다. '폴리 I'이 시민들의 통행권을 방해하는 등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에게 외면받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기대 속에 추진된 광주 '폴리II' 일부 작품이 벌써부터 우려를 낳고 있다.

6일 광주비엔날레재단에 따르면 모두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부터 추진한 설치한 광주 '폴리II' 8작품이 오는 10일 오픈한다.

이번 폴리에는 세계적 건축의 거장 렘 콜하스를 비롯해 중국의 아이 웨이웨이, 서도호 등 유명 작가와 건축가 다수가 참여했다.

하지만 오픈전부터 작품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일부 작품은 향후 관리 주체를 정하지 못하는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폴리II'는 단순히 보여주는 작품에 그쳤던 '폴리 I'과 달리 작품마다 관리 단체를 지정해 시민들이 체험을 통해 실생활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9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광주 지하철 1호선 4편성에 1당씩 설치된 '탐구자의 전철'은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인도 출신 예술가 그룹인 락스 미디어 콜렉티브는 지하철 1당의 멋진 흰색 바탕을 검정색

**예산 25억 8개 작품 10일 오픈**  
**'탐구자의 전철' 세대별 시각차**  
**역사성·공공성 장소 설치 조화**

선들의 스펙트럼으로 꾸몄다.

하지만 시범 운영을 거치면서 10~20대 층에서 큰 호응을 받았지만 60~70대 층에서는 "어지럽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시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0% 이상이 '부정적' 답변을 내놨다.

광주역 앞 교차로에 설치된 예술 와이즈만의 '혁명의 교차로'와 광주공원에 만들어진 수퍼플렉스의 '유네스코 화장실'은 아직까지 정확한 운영주체에 대한 논의도 되지 않았다.

재단은 당초 혁명의 교차로에 있는 시민들의 공간인 '라운드 테이블'을 특정 단체에 맡기려 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면서 당분간 활용되지 못하고 빈 공간으로 남을 공산이 큰 상황이다.

유네스코 화장실은 사용하기 불편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 광주공원의 낡은 화장실을 철거하고, 파리 소재 유네스코 본부의 상임위원화장실을 복제해 옮겨왔지만 멋진 외관과 함께 내부에 설치된 소변기와 좌변기가 서양인 기준으로 설치돼 내국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

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청소 등 관리를 맡을 주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논의되지 않아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작품의 보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광주전에 들어서는 데이비드 아자예와 타이에 셀라시의 작품인 '광주전 독서실'은 이날 현재 완공도 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들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최근 한 달간 '폴리 평가단'을 꾸려 진행한 '폴리II' 평가에서도 지적됐다.

폴리시민협의회 3명, 시민단체 관계자 3명, 문화 전문가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폴리 I'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시민 소통 없는 행정의 일방통행 ▲광주의 역사성, 정체성, 장소성의 조화 미흡 ▲스타 마케팅에 의한 행정편의주의적 사업 ▲도시 디자인과의 조화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평가단은 문제점과 함께 '폴리II'는 역사성과 공공성을 담보한 장소에 설치됐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도 했다. 단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시민 여론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인환 광주시 의원은 "광주 폴리가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참여"라며 "폴리II가 완성되면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3차 폴리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진=최혜배기자 choi@kwangju.co.kr



## '아름다운 동행'

내일 우리가곡부르기회 행사

정완영의 시에 작곡가 황덕식(한국합창연합회 이사·사진)씨가 멜로디를 부친 '애모'는 가곡을 사랑하는 이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곡 중의 하나다.



매일 한차례씩 모여 함께 노래하는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회장 황선옥)가 황덕식 작곡가를 초청, 11월 행사를 진행한다. 8일 오후 7시30분 호신대 테리라운.

이날 행사에서는 부부를 위한 노래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도 마련한다. 또 박인수, 김희숙, 김성춘, 이대형, 박현, 나인희씨 등 회원들은 '세월의 샘' '귀천' '그대 그리움' 등을 들려준다.

그밖에 '옛 동산에 올라' '고향의 노래' '남이 오시는 지' 등을 함께 부른다.

남구문화회관에서 열리는 12월 행사는 송년 사랑나눔음악회로 꾸며진다. 행사 수익금은 불우이웃 시설에 전달할 계획이다. 참가비 1만원. <http://cafe.daum.net/gjkr-song> 문의 010-2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춘향, 꽃 피우다'

국악그룹 '늘숨' 내일 정기연주회

국악그룹 늘숨(대표 김지혜) 제6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8일 오후 7시30분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춘향, 꽃 피우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늘숨은 관소리 '춘향가'를 새롭게 해석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춘향과 몽룡의 설레이는 만남을 아름다운 선율로 담은 'Romantic'을 시작으로 열정적인 사랑을 탭고리듬으로 풀어 만든 'Blossom', 춘향을 구하러 온 몽룡의 애타는 마음을 표현한 'I'll be back' 등 '춘향전'의 스토리를 따라간 레퍼토리가 흥미롭다.

2004년 창단한 국악그룹 늘숨은 '늘 숨 쉬는 사람들이'란 의미로 전통에 뿌리를 두고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이날 연주에는 허동관, 문경미, 임영대, 이다정, 김윤아, 윤민석, 임철철, 황성훈, 차유창, 윤혜선이 함께 한다. 전석 1만원. 문의 010-4468-4757. /김미은기자 mekim@

## '페스티벌 오! 광주 여성합창축제' 8~9일 빛고을시민문화관

페스티벌 오! 광주 여성합창축제가 오는 8~9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과 광주합창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멋진 친구들'을 주제로 19개 합창단과 700여명이 참여한다.

8일 오후 7시 열리는 개막공연 '명품합창초청공연'에서는 한국 합창계의 대부 윤환원 지휘자가 이끄는 인천시합창단(사진)이 무대를 꾸민다. 합창단은 이날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 'All I ask of you', '담배가게 아가씨', '행복의 마차' 등 11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9일 오후 3시부터는 '문화나무에술단'이 진행한다. 인터넷 공모를 거쳐 접수된 아마추어 합창단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12개 합창단이 1, 2부로 나눠 공연을 펼친다.

광주·전남 지방의 합창 모임 회원들로 구성된 백일홍합창단, 사회복지법인 광주예육원의 꿈을품은메아리합창단, 행

복이울림합창단, 마미아띠뮤지션합창단, 동신여고합창단 등이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인다.

공연 전 로비에서는 '문화나무에술단'이 참여하는 '남을 위한 문화나무'가 열려 가곡, 민요, 외국곡 등을 들려준다. 부대 행사로 합창악보 및 음악관련 전시회와 판매도 진행된다. 티켓은 광주문화재단을 통해 구입 가능하다. 티켓 가격 5000원, 1만원. [www.festivalo.kr](http://www.festivalo.kr). 문의 062-670-7465. /이보람기자 boram@

## 19개 합창단 아름다운 하모니



##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http://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홍삼은

## 북고당 한약비빔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